

“힘든 시대, 서로 위로하며 손잡고 싶어요”

그만큼 나도
슬픔이 사투리였는지
보내게까지 곡성이네?
-전수남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별다른 딱이건,
사나움도 딱이건!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판화 인생 40년 기념전을 여는 이철수 작가가 대표 연작 '무문관' 시리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제 닦아놓는 길은
도들 닦습니다.

'산마는 건.....'
이철수 2013



-호박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조공의 상계 풀리기 속구할
지정됩니다만...
-그러실 것까지... 한복벌이여, 보자마자, 이슬이여, 회야
시름의 손길까지 두루 갖기엔 이만합니다. 다 되려오니
이제 서는 길이 보았습니까. 거두어 드는 삼시 푸른외이
들니까? 서있거나, 벗어날 보았습니까. 흠뻑은 자리에 면려놓기
주시면 더 보았겠습니까만...
-호박을... '이철수 2013'



2012년 새로 새긴 동화 '몽실언니' 삽화

아이를 업고 있는 단발머리 '몽실언니'를 보고
물물했다. 고(故) 권정생 작가의 동화 '몽실언
니' 속 인물들은 웬지 모르게 애뜻하다. “호박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새겨진 ‘늘
은 호박’을 한참 들여다 본다. 선승들의 대화 한
자락에, “이 얼굴이 네 얼굴이나? 그 얼굴로 오래
살면 네 얼굴 못찾는다” 일갈하는 작품까지.

이철수(67) 작가의 작품 앞에선 좀처럼 발을
떼기 어렵다. 그림 자체가 주는 울림, 글이 주는
따뜻함,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사색
의 깊이. 판화로 시를 쓰는 작가, 그의 작품은
두고 두고 마음에 남는다.

이철수 작가가 목판화 인생 4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2022년 2월28일까지)를 진행 중이다.
개막일인 7일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로터스 갤
러리에서 이 작가를 만났다. 1·2층을 아우르는
넓은 전시장 덕분에 바로 직접 열린 서울 전시보
다 2배나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맑아지지 않
고, 따뜻해지지 않았습다. 힘든 사람들도 너
무 많아졌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들
기보다는 내치고, 차별하려고 들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 우리 모
습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일반 작품 전시를
10년 간 안했는데 이번엔 꽤 많은 그림을 보여드
릴 수 있어 기뻐요. 광주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상념들이 있지
요. 광주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과 만나
면 어떻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다.”

이번 전시에는 ‘무문관’ 연작과 ‘몽실언니’ 등
동화 삽화, 최근 10년간 작업한 판화 등이 두루
나왔다. 전시 제목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은
무문에게가 편집한 선종 공안집(公案集)인 ‘무
문관(無門關)’에서 따왔다. ‘무문관’은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할 계기와 방편의 언어들을
담은 책으로 마흔 여덟편의 이야기가 담겼다.

“‘무문관’은 쉽게 말하면 선승들이 참선수행
교과서로 삼았던 책이에요. 책에 담긴 지혜는 종
교적인 걸 떠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귀 기울여볼
만한 지혜입니다. 마음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
에,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고 제가 선문답을
던지기도 하고요. 마음 이야기를 깊이 해보고 싶
었습니다.”

“‘무문관’은 천천히 만든 연작이다. 수십년간
머리맡에 두고 읽으며 마음에 새긴 글들이고,
밑그림은 10여년 전 그렸다. 물론 옛 것 그대로
는 없다. 책속 선승들의 선문답은 현재 우리 삶
의 이야기와 어우러지며 다양한 주제로 확장된
다. 법정스님은 늘 “일반 작품보다 사람들이 덜
관심을 갖거나 안 팔려도 선화(禪畫) 많이 그려
놓고 죽어라”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동화 ‘몽실언니’ ‘점두이네’ 삽화 50여점은 일
반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젊은 시절 쉽
게 그린 삽화들이 명품에 누더기를 걸쳐 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침 출판사에서 판
을 바꾸겠다 해 한정하는 의미로 판화를 다시 새
기겠다고 하고, 1년간 작업했죠. 저렇게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여전히 사랑받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었습다. 선생님은 쉬운 단어로 글을 쓰
시지만 감동의 크기는 너무 커요. 짧은 에세이나
작품으로 사람을 이렇게 딱딱하게 하다니요. 쉬
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젊은 시절의 각오도 선생
님과 작업에서 나온 겁니다.”

소품 연작을 모아 지난해 출간한 ‘내일이 와
준다면 그건 축복이지!’ 수록작은 일상을 포착
한 이 작가의 특유의 작품이다. 의자, 열쇠, 시
골의 닫힌 문, 고양이 등에서 어쩌면 그런 이야
기를 꺼내놓는 건지 궁금하다. 수백장의 종이를
잘라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런 것들로 작정하지
않은 채 방심하고 그려서인지 사람들이 더 좋아

이철수 작가 목판화 40년 기념전 내년 2월28일까지 로터스갤러리 ‘무문관’ 연작 ‘몽실언니’ 등 전시

하더라도 했다. 또 신영복 선생과 합작 한 ‘통
(2016), 도종환 시인의 대표작 ‘담쟁이에게’에
화답처럼 새긴 ‘어린 앞 앞서가고’ 등도 눈길을
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앞으로 작업할 새로운 시
리즈 몇 점을 내놓았다. ‘애고, 애고’ 시리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 하나를 만들어
서 철벽처럼 벽을 쌓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
인듯해요. 짝으면 속 들어가는 잘 익은 감자가
아니라, 건들이면 화들짝 놀라고 방어막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큰일 났다. 애고(아이
고) 이거 어떻게 하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 같은 얼굴을 상징하는
애고(ego)이기도 하고요. 나나 없이 딱딱뜨리는
인생의 벽일 수도, 그늘일 수도 있습니다.”

판화 작업은 서서히 줄어갈 계획이다. 눈도 침
침 멀어지고, 농사를 병행하다 보니 힘이 부친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판화 작업은 아무
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니 작은 그림처럼 그려
볼까 생각중이다. 다음 작업은 ‘기독교 성서’다.
사랑, 자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벽’
이 존재하는 시대, 한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세
상은 이렇까 조금은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하
지만 “착한 사람들과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런 사람들과 손잡
고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 드럼, 대금 순수 일곱번째 공연 10일 호랑가시나무

가야금과 드럼, 대금이 뭉쳤다.
근대역사문화마을 앙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
수’가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앙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 클라스폴리
공에서 일곱 번째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3인 삼색의 새
로운 시도 TREE ‘3’”으로 무대에는 가
야금 서정민, 드럼 원익준, 대금 송지윤
이 올라 평소 보기 어려웠던 색다른 조
합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서는 호랑가시나무를 주제로
구성된 즉흥음악과 서정민이 호랑가시
나무 창작소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자작곡 ‘호랑가시나무’, 25현 가야금
솔로곡 ‘회전목마’ 등을 들려준다.

드러머 원익준은 ‘순수’의 예술감독
이자 호남신학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활동중이며 가야금 연주자이자 창작자
인 서정민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국악 듀오 슈(su:m)의
멤버로 오랜기간 관객과 만나왔다. 동
아극악공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두
각을 나타낸 대금 연주자 송지윤은 전
통의 법주를 넘어 경계 없는 창작자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땀한땀 ‘어머니의 보자기’ 조영대 초대전, 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일상적 소재에 대한 사색으로 독특한 자연의
질서를 캔버스에 담아 온 조영대 작가 초대전
이 오는 16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
린다.

‘어머니의 보자기 Natura Mort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40여점의 작품
을 선보인다.

한 조각, 한 조각 어머니의 손길로 연결돼 만
들어진 보자기의 선들이 고스란히 캔버스 위로

울려져 표현됐고 물감을 반복적으로 바르고 깎
아서 쌓인 마티에르에서 작가 고유의 색감이 스
며 나온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업했던 정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번 작품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작가는 어머니가 만든 보자기에 나타나는 자
연스러운 선의 형태를 화면 속에 등장시켰고 그
가 선택한 보자기의 선은 자연의 색을 만나 미묘
하고 아름다운 변주를 보여준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시각화하는 작가는
캔버스에 색을 칠하고, 그것을 긁어 내고, 다
시 선을 그으면서 형상 너머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완주군 용진읍 자연마을에 작업실을 두고 작
업하는 조 작가는 원광대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17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